S-A10

일일 3회 교환하는 지속적 외래 복막 투석 환자와 자동 복막 투석 환자의 삶의 질 비교에 대한 전향적 임상 연구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1],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2],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산병원 신장내과[3]

김원준[1], 김진국[2], 차대룡[3], 김흥수[1], 신규태[1]

Comparison of Patients' Quality of Life between Three Exchanges CAPD and APD: A Prospective Clinical Study

Won Jun Kim[1], Jin Kuk Kim[2], Dae Ryong Cha[3], Heungsoo Kim[1], Gyu-Tae Shin[1]

Department of Nephrology[1]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uwon
Department of Nephrology[2] Soonchunhyang University Hospital Bucheon
Department of Nephrology[3] Korea University Medical College Ansan Hospital

목적: 자동 복막 투석 (automated peritoneal dialysis, APD)은 지속적 외래복막투석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APD)과 비교하여 환자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이 다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루 4회 교환하는 일반적인 CAPD의 경우 한국인은 서구인에 비하여 체격이 작아 Kt/V가 투석 첫해에 K/DOQI 기준을 상당 정도 웃도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Cho J et al. Korean J Nephrol 29, 2010). 본 연구에서는 하루 3회 교환하는 CAPD를 하는 환자와 APD 환자의 삶의 질을 서로 비교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새롭게 CAPD나 APD를 시작하는 성인 환자로 하였으며 CAPD 환자는 체표면적이 2.0 m^2 이하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APD는 다이아닐과 엑스트라닐로, CAPD는 피지오닐, 뉴트리닐과 엑스트라닐의 3회 교환으로 하였으며 환자의 수분 상태에 따라 피지오닐의 농도를 결정하였다. Kt/V를 PD 시작 시점과 6개월에 측정하였으며 추가적인 투석액 교환을 필요로 하거나 Kt/V가 1.7 이하인 환자는 탈락시켰다. 삶의 질에 대한 설문은 KDQOL (Kidney Disease and Quality Of Life) SF version 1.3의 한국어 버전을 이용하여 투석 6개월째 시행하였다. 분석은 KDQOLSF version 1.3 scoring program (v3.0) (UCLA, USA)과 SPSS를 이용하였다.

결과: 총 29명 (CAPD 16명, APD 13명)의 환자에서 6개월 째 KDQOL 설문을 시행하였다. 두군 간의 나이, 성별, 원인 질환, 키, 체중, 체표면적 같은 환자 특성의 차이는 없었다. KDQOL 설문 분석 결과는 말기 신부전을 대상으로 하는 11가지 항목 즉 증상, 신질환의 영향, 신질환으로 인한 부담, 직업 현황, 인지 기능, 사회적 유대, 성적 기능, 수면, 사회적 지지, 의료진의 격려, 환자 만족 지표에서 CAPD환자가 증상 지표와 인지 기능 지표가 APD환자 보다 나은 경향을 보였으며 (각 p=0.055, p=0.051), 36 item health survey (SF-36)의 8가지 항목 즉 신체기능, 신체적 제약, 통증, 전반적인 건강, 정서적 건강, 정서적 제약, 사회적 기능, 피로감 지표에서는 CAPD환자가 신체 기능 지표에서 APD환자 보다 의미 있게 나았으며 (p=0.028), 통증과 사회적 기능 지표에서도 CAPD환자가 APD환자 보다 나은 경향을 보였다 (각 p=0.074, p=0.091). 또한 신체적, 정신적 SF-12 혼합 분석에서도 신체적 건강 지수가 CAPD환자에서 APD환자 보다 현저하게 나은 결과를 보였다 (p=0.015)

결론: 하루 3회 교환하는 CAPD는 APD에 비하여 투석 시작 6개월 째에 환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Key Words: 삶의질, 복막투석
Quality of life, Peritoneal dialysis